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상업은행들의 부실대출비율은 2012년 4/4분기 0.95%에서 2015년 4/4분기 1.67%로 상승하였음. 중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부실대출채권 유동화 증권을 보험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원인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이며, 기업의 수익성과 대출상환능력 악화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비율은 2012년 4/4분기 0.95%에서 2015년 4/4분기 1.67%로 상승하였고, 규모는 4,929억 위안에서 1조 2,700억 위안으로 증가함.

-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출비율은 1.67%이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부실대출비율이 6%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
 -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이 부실대출로 분류됨.
 - 중국 은행들은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더라도 담보와 보증 가치에 따라 부실대출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실대출비율보다 낮을 수 있음.¹⁾

- 부실대출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임.

- 2009년 중국 경기부양정책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과 그림자 금융 증가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도 2008년 9.6%, 2009년 9.2%에서 2010년 10.6%로 상승함.
- 2009년 경기부양정책 시행 이후 투자 증가는 철강, 조선, 중화학공업 산업의 생산규모 확대에 이어졌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로 인해 이들 산업의 기업 수익성이 악화됨.

1) 중국 은행의 대출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상(Pass), 요주의(Special Mention),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Loss) 등으로 구분되며 '고정' 이하 대출이 부실대출로 분류됨(DBS Group 2015. 10. 7).

- 중국 기업 2,87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이자보상배율²⁾이 1 이하인 기업의 비중은 20.6%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의 비중은 14.4%임.³⁾

■ 중국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상업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1~2014년 1.3~1.4%에서 2015년 1.1%로 하락함.
 - 전체 부실대출의 5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5대 은행(공상, 건설, 중국, 농업, 교통 은행)의 이익 증가율은 2014년 5.1~8.2%에서 2015년 1.1%로 하락함.
- 중국은 부실대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1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3년 말 283%에서 2015년 말 181%로 하락함.
 - 2016년 1/4분기 기준으로 공상은행 141%, 건설은행 152%, 중국 은행 149%를 기록함.
-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발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가 올해 22개로 지난해 21개를 넘어섰으며, 특히 국유기업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과다한 기업부채⁴⁾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출자전환(Debt Equity Swap)을 추진하고 부실대출채권 유동화 증권(ABS)을 보험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IMF는 중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기업부채위험은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기업부채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자본 유출, 내수 위축 우려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확대, 중국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보험회사 인수 등으로 중국의 경제불안이 우리나라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가 오히려 위험 대출 증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수 있음.⁵⁾ **kiri**

2) 영업이익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

3) IMF(2016. 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4) 기업부채는 비금융기업들이 국내에서 조달한 신용(Credit)으로 정의되는데 은행 대출, 채권 등임.

5) Zhang Dayong et al.(2016), "Non-Pefroming Loans, Moral Hazard and Regulation of the Chinese Commercial Banking Syste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63.